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건강 가꾸기에 관한 연구

이 현 숙
경기도 여주군 보건소장

경기도 여주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총 인구는 11만명이다. 이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9%이며, 의료취약인구는 17.5%를 차지하고 있다. 여주군 주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건강요구 조사결과에서 보면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의 순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조사에서는 성인의 40% 이상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주군에서의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보건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재정적,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건강증진사업이 필요로 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부분적이고 일부대상에 제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이전의 건강증진사업을 좀더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부각되는 건강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주민들의 건강증진생활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별 중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학령기에는 비만예방관리사업, 청소년기에는 금연사업, 중·장년기에서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문제관리 그리고 노년기에는 고혈압예방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영양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절주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표적집단과 목표에 따라 단일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실시·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강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네트워크개발, 지역 사회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마련,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자기건강가꾸기는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도함으로써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